

仲景傷寒論에關한考証

慶熙大学校大学院

朴贊國·洪元植

I 緒 論

現存하는 傷寒論은 宋 成無已의 註解本으로 全 10卷 22篇으로 되어 있는바 原文中 傷寒例篇首의 「搜採仲景舊論 錄其証候……」 및 辨發汗吐下後脈証并治篇首의 「……似於覽者 檢閱未便 今復校勘 備列于後」等의 句節은 王叔和가 撰次時 한 말로 原文에 混入되어 있으니 其他 脉法, 治法, 辨証 等에 叔和之言이 混入되었을 可能성을 배제 할 수 없으며, 原文의 篇次에도 仲景原文의 次序가 적지 아니 倒亂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後世学者들의 意見을 資料로 하여, 辨脈 및 平脈篇, 傷寒例, 痘濕喝三種篇, 六經篇, 可與 不可等篇으로 나누어, 後世学者들의 考証內容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資料 및 要約

1. 皇甫謐曰「仲景論廣伊尹湯液 為數十卷 用之多驗 近代太医令 王叔和撰次 仲景遺論甚精 皆可施用」이라하여 王叔和가 仲景遺論을 매우 정히 撰次했음을 밝힘.

2. 孫思邈曰「論曰 傷寒熱病 自古有之 名賢濟哲 多小防禦 至方仲景 特有神功 尋思旨趣 莫測其致 所以医人未能鑽仰 常見太医療傷寒 惟大青知母 等諸冷物投之 極與仲景本意相反 湯藥雖行 百無一効 傷其如此 遂披 傷寒大論 鳩集要抄……方雖是舊 弘之惟新 好古君子 喜其博濟之利無嗤笑焉」이라하여 傷寒大論을 鳩集하여 要抄한다 했는데, 太医의 治傷寒이 仲景本意와 相反되기 때문 傷寒大論은 鳩集要抄한다 하였으니 傷寒大論은 仲景傷寒論稱한다고 생각된다.

3. 王壽曰「仲景氏中有卒病論以治傷寒著 方一百一十三, 有金匱要略以治雜病著方一百一十二 医方實開先焉 蓋鼻祖也 又得叔和 王氏 為之詮次 俾仲景之微旨益以彰明叔和氏 不更立方 即述仲景之方為方者也」라 하여 叔和가 仲景之方을 그대로 述하고 다시 立方하지 아니 하였음을 밝힘. 이 말로 미루어 보면 王壽가 唐時에 仲景原文을 보았다고 생각할 수 있음. 外臺秘要의 仲景傷寒論 某卷中出이라는 註는 仲景原文의 註다라고 생각된다.

4. 高溝曰「王叔和編次張仲景方論 編為三十六卷 大行於世」라 하여 叔和가 仲景方論三十六卷을 编次했음을 밝힘.

5. 孫奇等傷寒論序曰「自仲景於今 八百餘年 惟叔和能學之 其間如葛洪 陶弘景, 胡洽, 徐之才, 孫思邈 輩 非不才也 但各自名家而不能修明之, 開寶中節度使 高繼沖 曾編錄進上 其文理舛錯 未嘗考正 歷代雖藏之書府 亦關於讐校 是使治病之流與天下 無或知者, 國家詔儒臣 校正醫書, 奇統被其選 以為百病之急 無急於傷寒 今先校正 仲景傷寒論十卷總二十二篇証外 合三百九十七法 除重復定有一百一十二方 今請頒行」이라하여 歷代로 書府에 藏之한 仲景傷寒論十卷二十二篇을 校正했다고 밝혔는데 「自仲景於今 八百餘年 惟叔和能學之」란 語句로 미루어 叔和의 撰次本을 校正했으리라 짐작된다.

6. 嚴器之曰「昔太医令 王叔和 以仲景之書 撰次成叙 得為完帙」라 하여 叔和의 撰次했음을 밝힘.

7. 劉完素曰「仲景之書 復經太医令 王叔和 撰次遺方 唐開寶中 節度使 高繼沖 編集進上 虽操心用智 自出心意 広其法術 雖於舊說 이라 하여 傷寒論이 叔和와 唐高繼沖의 撰次 編集을 겸어 舊說이 混入되었음을 至張한.

8)

8. 吳澄曰「漢末張仲景著傷寒論予嘗嘆東漢之文氣無復能加西都。独医家此書淵奧典雅煥然三代之文心一格之乃觀仲景於序卑弱殊甚然後乃知序乃仲景所自作傷寒論則古湯液論蓋上世遺書仲景特篇纂云爾非其自撰之書也。晋王叔和重加論次而專錄者誤以叔和之語參錯其間莫之別百」이라 하여 傷寒論中序文만이 仲景의 自作이며 傷寒論은 古湯液論을 仲景이 단지 篇纂했을 따름이며, 王叔和가 다시 論次를 加했는데 後人이 叔和의 語를 原文에 混入시켜 서로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고 主張함.

9)

9. 呂復曰「傷寒論十卷乃後漢張機仲景用素問熱論之說廣伊尹湯液為之至晋王叔和始因舊說重為撰次而宋成無己復為之註釋其後龐安相朱肱許叔微韓祇和王實之流固亦互有開發而大綱大要無越乎汗吐下四法而已蓋一証一藥萬選萬中千載之下若合符節前賢指為群方之祖信矣所可憾者審脈時汨王氏之言三陰率多斷簡况張經王傳亦往汨反復後先亥○相雜」이라 하여 審脈에 叔和의 言이 섞여 있고, 三陰篇에 斷簡이 많으며, 張經王傳이 先後가 바뀌어 있다고 主張함.

10)

10. 王叔和曰「王叔和搜採仲景舊論之散落者以成書功莫大矣但惜其既以自己之說混於仲景所言之中又以雜脈雜病紛紜並載於卷首故使玉石不分主客相亂」이라 하여 叔和가 仲景原文에自己의 說을 混入시켜 또 雜脈雜病篇을 卷首에 載하여 玉石을 分할 수 없고, 主客이 相亂되었다고 主張함.

11)

11. 黃仲理曰「仲景之書六經至勞復而已其間三百九十七法一百一十二方纖悉畢備有條而不亂也辨脈法平脈法傷寒例三篇叔和採推群書附以己意雖間有仲景說實三百九十七法之外者也又瘧濕喝三種一篇出金匱要略叔和慮其症興傷寒相以恐後人誤投湯劑故篇入六經之內致有宜忌別論之語是為雜病非傷寒之候也又有不可汗宜汗不可吐宜吐不可下宜下并汗吐下後症叔和重集於篇末比六經之中仲景之書六經至勞復而已其外辨脈法平脈法傷寒例三篇愈卒尋檢易見也」라 하여 仲景書는 六經에서 勞復까지이며 其外 辨脈法, 平脈法, 傷寒例三篇은 叔和의 自作이며, 瘡濕喝一篇은 金匱要略中에 있는 것을 六經之内에 篇入시킨 것이며 不可汗, 宜汗, 不可吐, 宜吐, 不可下, 宜下와 汗吐下後症은 叔和가 六經篇中에서 重集한 것이라 主張함.

12)

12. 陳楠曰「辨脈法非仲景本文乃叔和採摭者故

多乖忤 学者宜審別之」辨脈法은 仲景本文이 아니고 叔和가 採摭한 것이라 主張함.

13)

13. 方有執曰「辨症湿喝病症篇相傳謂叔和述仲景金匱之文雖遠不可考觀其揭首之辭信有之也然既曰以為與傷寒相似而致辨焉則述所當述書是故後人称之为仲景之徒云辨脈法叔和述仲景之言附己意以為贊經之辭譬則翼焉傳類也篇目舊名平脈次第二而僭經右夫傳不可以先經論脈亦無先各脈而後平脈之理且平脈不過前數條冒事必

耳後亦各脈安得直以平脈名篇皆非叔和之舊其為後人紛更明甚凡瘧濕喝辨脈上下篇可汗不可汗可吐不可吐可下不可下發汗吐下後脈証皆叔和分經乃述經外之餘言附之意以撰次之合經亦十一篇其目二十二以為全成仲景氏未完之全書者也第十七十八二十二三篇則又皆抱空名而虛位無冊條之可檢實則十九篇条冊耳」이라 하여 瘡濕喝病症篇을 叔和가 述했으되 마땅히 述할 바를 述한 것이며 其外 辨脈法이 傳으로서 經을 僮했으며 平脈法의 内容을 보건데 叔和의 本이 아니고 後세에 고쳤음이 분명하다 하여 其外 可興不可諸篇은 叔和가 分經한 것이며 十七,十八,二十二三篇은 内容이 모두 六經篇과 重複되므로 実은 없는 것과 같아 二十二篇이 아니고 十九篇일 따름이라 主張함.

14)

14. 方有執曰「医道之方法俱備自仲景始故世称仲景方法之始傷寒乃其書也考求其方法義例明甚何謂例如中風一也傷寒二也兼風寒俱有而中傷三也三病不同以皆同在太陽故皆發汗發汗云者非例言乎何謂義如發中風之汗汗之以桂枝湯發傷寒之汗汗之以麻黃湯發兼風汗俱有而中傷之發汗汗之以大青龍一例發汗而湯則不同非以其各有所宜之義乎然則方法者道之用也例者所以行其方法也義則行而宜之謂之是皆相須而不相離一致之謂道也嗚此以為然其餘各屬悉皆類此條目俱在也夫何無己之註解不省義例方法中法外又独有傷寒之例獨例傷寒而置諸各屬舍義而獨曰例豈仲景之言其后人為明甚矣」라 하여 傷寒論中에 이미 義例가 具有함을 밝혀 다시 傷寒例를 作함은 不可 함을 主張한다. 왜냐하면 發汗도 역시 一例지만 發水中에 中風에 桂枝湯을 씀이 一例요 傷寒에 麻黃湯을 씀이 一例요 兼風寒에 一例로 其他各屬도 모두 이와 같으니 別로 傷寒例를 둠이 不可하니 傷寒例는 後人이 作하여 篇入했음이 分明하다

立主張함.

15. 閔芝慶曰¹⁵⁾「傷寒有例 猶律法有例，罪必明証 從例治之 痘有明証 從例治之 是皆所謂法也 律可定罪之名 正名所當先也 傷寒例先正傷寒所由名 遂及溫暑時行冬溫寒疫所由名，各正其名者 欲發明傷寒與諸病相異，故論傷寒而略言諸病耳 此傷寒例所由名也 彰之以六經脈証 曰可汗可下 是明例在可治者也 兩感於寒者死 不兩感於寒 不伝經不加異氣者得自愈 十三日不差者危 感異氣變為他病者 当以壞証治之 是明例各不同者也 又可嘯病須早治 治勿妄山仁愛之意 深且切矣 須知此篇論中綱領 僅道常寒之常而未盡其變 諸變不可勝數 故後有六經諸病 發明此例 前後一貫 豈容偏廢哉 方氏作條辨 辨傷寒例 非仲景之言 出後之偽遂削去之 我不敢言此例皆仲景言也 中有搜採仲景舊論 錄其証候証語 豈仲景言乎 皆非仲景言也 中有微詞奧義 發素問熱論所未發者 後人豈能偽乎 謂叔和附以己則可 謂全非仲景言則不可」라 하여 傷寒例에 定名을 먼저 둔 것은 傷寒이 雜病과 相異함을 밝히려 한 것이며 뒤의 六經諸病은 이 例를 發明한 것으로 前後가 一貫 할 뿐아니라 素問熱論의 未發者를 發明한 것으로 後인이 감히 할 수 없는 바가 있으므로 傷寒例가 전부 後人の 作이라 하여 削去해버린 方有執의 意見을 反駁하여 傷寒例에 叔和의 意見이 篇入되었을지는 모르지만 全體가 仲景의 言이 아니라고하는 것은 不可하다고 主張함.

16. 喻昌曰¹⁶⁾「後漢張仲景著雜病傷寒論十六卷 当世 兆民賴生全 伝之後世如日月之光華 旦而復旦 万古常明可也 斯民不幸至晋代不過 兩朝相隔 其雜病論六卷亡不可復覩 即傷寒論十卷 想亦劫火之余僅得之謗者之口授故其篇目 先後差錯 賴有三百九十七法 一百一十三方之名目 可以為校正 太医令王叔和 附以己意 編集成書 共二十二篇 後人德之称為仲景之徒 今世傳仲景傷寒論 乃宋秘閣臣 林億所校正 宋人成無己所註註之書也 林億不辨 朱紫絅栗謂自仲景於今 叔和能學之 其間如葛洪陶弘景 胡洽 徐之才 孫思邈等 皆不及也 又伝称成無己註解傷寒論十卷 深得長沙公之秘旨 殊不知林成二家過於尊信叔和 往往先傳後經 將叔和緯翼之辭 且混亂為仲景之書 况其他乎 如一卷之平脈法 二卷之序例 其之原不雅訓反首列之以錯亂聖言 則其所為文正 所為註者 乃仲景之不幸而斯道之大反也 元泰定間 程德齊作傷寒鈴法 尤多不經國朝王履所論

雖有深心漫無卓識亦何足取万曆間方有執 著傷寒条辨 始先即削去叔和序例 大得尊經之旨 然未免失之過激不若愛存羊取而校正之是既完功罪自也 其於太陽三篇改叔和之旧 以風寒之傷營衛者分屬卓識超越前人此外不達立言之旨者尚多 大率千余年若明若昧之書欲取而尚論之如日月之光照宇宙 必先振与其大綱然後詳明其節目 始為至当不易之規誠以冬春夏秋時之四序也 冬傷於寒 春傷於溫 夏秋傷於暑熱者 四序中主病之大綱也 拳三百九十七法令隸於大綱之下 然後仲景之書 始為之書 其冬傷於寒一門 仲景立法獨詳 於春夏秋三時者 蓋以春夏秋時令雖有不同 其受外感則一 自可取治傷寒之法 錯綜用之耳」라 하여 張仲景以後 雜病論六卷은 이미 亡失되었고 傷寒論十卷도 口授로 相伝되어 이를 叔和가 自己의 說을 붙여 編集하였다. 이에 今世傳寒傷論은 宋林億等이 校正하고 成無己가 註解한 것으로 林成二家の 篇集이 叔和之言을 混入시켜 先伝後經하는 過誤를 범하였으며, 其外 程德齊, 王履, 方有執等의 所論이 있으나, 傷寒論은 먼저 大綱을 定하여 이에 三百九十七法을 隸屬시켜야 하니, 大綱은 冬傷於寒, 春傷於溫, 夏秋傷於暑熱이라고主張함.

17. 喻昌曰¹⁷⁾「王叔和於仲景書 不察大意妄行篇次補綴尚存闕疑一綫觀其篇首之辭 謂痽濕喝雖同為太陽經病以為宜応別論者 其一徵也 観其篇中 謂疾病至急倉卒尋按要旨難得 故重集可与不可方治者其一徵也 観其篇未補綴脈法分為二篇 上篇乃仲景之旧下篇託仲景以伝猶微至於顛倒大亂者 其一徵也 第其不路補綴之痕 反以平脈本名 易為辨脈而陰行一字之顛倒 此吾為譏其僭竊耳 若夫林億之校正 成無己之註註則以脈法為第一卷矣 按仲景自跋云「平脈辨証為傷寒雜病論合十六卷」則辨脈法 沟當隸於篇首 此後羚羊掛角 無跡可求 謎能辨其熟為仲景 熟為叔和乎 然猶隱而難識也 其序一篇明係 叔和所撰 何迺列於第二卷」이라 하여 叔和補綴編次之痕은 痘濕喝脈証篇首의 言과 不可發汗病脈病并治 篇首의 言과 脈法을 分하여 平脈 辨脈으로 나눈것이 그 徵이며, 原來 卷末에 있던 脈法을 成無己가 卷首로 옮기고, 傷寒例가 仲景의 言이 아니고 叔和의 言이 分明한데 第二卷에 篇列하여 어느것이 仲景의 作이며 어느 것이 叔和의 것인지 구별할수 있게 만들었다고 主張함.

18. 汪琥曰¹⁸⁾「傷寒論 自成註以後 在昔名医 如李東

頃不過以治法略舉其要。朱丹溪亦僅以「丸」摘問其目。未有以仲景原文全解者。至明季有歟人方中行著傷寒論八卷。乃成氏之後一人而已。我朝初有喻嘉言者。指廣方氏未發之旨。著尚論篇五卷。是亦仲景之功臣也。復有程子郊債。即倣二書之意。著後條辨之卷。其中亦有可採之處。所可嫌者。三家之書。皆例亂仲景六經篇原文。彼雖各有其理。要之六經原次。或当日叔和未盡改易。其間仲景妙義。焉知不反由此新篇而盡失耶?」라하여 成無己 以後에 方有執 喻嘉言, 程郊債등이 仲景之經篇原文을 다시 倒亂하였다. 六經篇原文을 비록 叔和가 改易했다 하더라도, 고차지 많은 곳이 있었다면 이로 因하여 仲景妙義가 완전히 諸여 버리게 되진 않을까하여 成氏本을 따를 것을主張함.

19)

19. 柯琴曰「仲景言 平脈辨証為傷寒雜病論 是脈與証未嘗兩分也 失因病而平脈則 平脈在辨脈中 脈有陰陽 発熱惡寒發於陽 無熱惡寒發於陰 是病之陰陽也。當例前論之首脈浮大動數名陽 沈瀋弱弦微名陰 是脈之陰陽也。此條當為之繼。叔和既採仲景舊論 其錄症候診脈 是知叔和別立脈法 從此搜採耳。試觀太陽篇云 脈浮者病在表 脈浮緊者 法當身疼痛 脉浮數者 法當汗出愈 諸條脈法 不入辨脈 平脈篇是叔和搜採未盡 猶遺仲景舊格也。由此推之知寸口脈浮為在表及寸口脈浮而緊脈浮而數諸條從此等處採出 脈有陰結陽結條 未始不在陽明中風中寒之間酒漸惡寒而復發熱者 未始不在少陽寒往來之部 脈陰陽俱緊者 未必非少陰之文 陰陽俱博條未必不在傷寒脈結代之條。設仲景別集脈法 或有上下之分 決無平辨之別矣。名平辨皆叔和搜採諸說」라하여 仲景序文의 平脈辨証為傷寒雜病論이라 하였으니 脈과証을 나누지 아니하였으며, 또 叔和가 既採中景舊論 其錄症候診脈이라 하였으니, 叔和가 別立脈法한것은 六經篇中에서 搜採한 것으로 「脈浮者病在表, 脉浮緊者法當身疼痛 脉浮數者法當汗出愈 등이 叔和가 다 搜採하지 못한 것으로 남아 있어 仲景原文之舊格을 미루어 알수 있으며, 寸口脈浮為在表及寸口脈浮而緊 脉浮而數諸條가 이 곳에서採出했음을 알수있고 脈有陰結陽結條과 陽明中風中寒之間에서 酒漸惡寒而復發熱者는 少陽寒往來寒之部에서 脈陰陽俱緊者는 少陰之文에서 陰陽俱博條는 傷寒脈結代之條에서採出한 경우 알 수 있다고 主張함.

20. 錢潢曰「傷寒論一書 按長沙公自序 原云傷寒

雜病論合十六卷。至西晉王叔和編次之后 其雜病論之卷 早已亡之後人不得復見。傳謂叔和又次為三十六卷。至宋成無己 因王氏之遺書 又註為傷寒論十卷。非惟仲景之舊不得見 即叔和之舊亦杳不可見矣。弟閻叔和所作傷寒序例一篇。其妄用結文倉立說亦殊不足觀。不若遺之為愈也。其成氏註本 原云十卷今行於世者 究僅七卷。以辨脈平脈為第一。其實原係仲景原文 亦不為過。但第二卷傷寒例一篇。乃叔和所自作。非仲景原文。因何亦列於七卷之中而反稱仲六經之前。非惟文理皆謬。且冠叔和倒置。凌亂錯雜矣。其第七卷 雖有霍亂陰陽易及差後諸復症。尤為仲景原文而後之諸可與不可。又非長沙之筆矣。何以知之。其篇首云「夫以疾病至急。倉卒難尋。故重集諸可與不可方治。比三陰三陽為易見也。」如此語氣。確為叔和所集」이라 하여, 辨脈平脈은 仲景原文에 原係되어 있으되 傷寒例는 叔和의 自作이 分明하며, 成無己本의 現存 傷寒論도 其实은 단 七卷으로 十五篇首의 語句로 미루어 可與不可諸篇은 仲景의 自作이 아니라고 主張함.

21. 魏荔彤曰「傷寒例叔和氏修輯巨聖之書 發其凡例也。列於篇首名之曰例 標題原未有序字。後人以其文近於序故名之曰序例。成氏註之 方氏削之 喻氏校之 程氏嘻笑且怒罵之以為僭濫以為悖謬。愚平心靜氣論之。其意亦未大舛特欲推廣傷寒於傷寒外耳。不知傷寒論 原非耑論。傷寒內也例之大概。謂四時皆有外感之氣。惟冬月乃正傷寒之名。欲推廣而反成拘執矣。……辨脈一篇的是医聖原文其辭簡括。其義深長與傷寒雜病論 心思筆致 皆是令人細繹不盡。推暨無方矣。著辨脈為論証之先務。所以叔和叙次為第一。不可謂以傳借經也。既非叔和所能擬義。原為医聖高文巨典。不妨置之 諸論之首。以重診視之事矣。於平脈分篇 是否医聖本意。或叔和考虞書中分二典之智乎。但忽首為韻語似反覺膚廓淺近 不類一手 豈少陵不能作散文 而医聖不能作韻語耶。真贊已無可考。熟得而屏之 屏之反為僭矣」라하여 먼저 傷寒例는 叔和의 自作이 分明하되 傷寒論이原来 傷寒만을 論하지 아니한 것을 모르고 傷寒을 傷寒外로 推廣하려 하였으며 辨脈一篇은 곧 仲景原文아로되 平脈을 分한 것은 叔和이며, 또 論하길 辨脈平脈을後인이 들로 分할 것이 아니니, 辨者는 分別함이요, 平者는 平章한다는 뜻으로 辨者는 条理의 始로 二로 分하고 미루어 無窮하고 平者는 条理의終으로 究하여 들로 나뉘지 않는다 하였다.

22. 姚際恒曰「傷寒論 漢仲景撰 晋叔和集」
 23. 徐大春曰「仲景傷寒論編次者 不下數十家 因故聚訟紛紜 此皆不知仲是作書之旨故也。觀仲景叔所述 乃為庸醫誤治而設 所以正治之法 一絃不過之四條 餘皆求誤之法 故其文亦變動不居。謗傷寒論者 皆設想懸擬之書則無往不得其義矣 今人必改叔和之次序 或以此條在前 或以此條在後 或以此証因彼証而生 或以此經因彼經而變 互相詬厲 誰知病變萬端 傳經無定 古人因病而施方 無篇方而待病 其原本次序 既已散亡 庶幾叔和所定為可信何則 叔和序例云「今搜採仲景舊論 錄其証候診脈聲色 對病真方有神驗者 擬防之急也」則此書叔和所搜集而世人輒加辨駁 以為原本不如此 抑思苟無叔和 安有此書 且諸人所篇 果能合仲景原文否耶」라 하여 傷寒例篇首之辭로 미루어 보건데 叔和가 이미 散亡된 仲景原文을 다시 所定한 것을 믿을만 하며 后人이 이에 反駁하여 다시 篇集을 한다 해도 역시 仲景의原文에 合할 수 없다고 主張함。

24. 按先子曰「……王壽外台秘要 載金匱要略諸方而曰 出仲景傷寒論某卷中 則唐時 其全帙 十六卷 不易舊目者 才存台閣中 王氏知弘文館因藉方書等時 特後採其秘要 載其著書今所傳十卷 雖重復頗多似強足十卷者 然逐一對勘 大抵與外台所符則 今傷寒論 不可斷為非七錄及唐志之舊也。蓋外台所引 今考其卷目 桂枝湯出 第二卷中 知太陽上篇在 第二卷 葛根湯 麻黃湯 少柴胡湯小健中湯出第三卷中 知太陽中篇在第三卷 柴胡桂枝乾姜湯 太陰胸丸等出第四卷中 知陽明篇在五卷 半夏散及湯真武湯 出第六卷中 知少陰厥陰在六卷 其第一、第七、第八、第九 雖無所考而葛根黃芩黃連湯云 出第七卷中 其餘不引藥方則 当第一弟辨脈等篇 第七以及汗吐下可不可等篇 且太陽病三曰云云屬陽明調胃承氣湯條今本載五卷 陽明篇云出第十卷 傷寒汗出惡寒身熱 大渴不止 欲飲水一二斗者 白虎加人之湯主之 此条今本失載 盖係於脫文而出第十一卷中 知辨發汗吐下後病在第十一卷 由是觀之 傷寒論大抵與今本 無大異同이라하여 王壽外台秘要를 보면 出方下에 張仲景傷寒論某卷中에 出한다는註가 있는데, 이로 보면 唐時에 十卷全帙이 있었을 것이며, 이를 現在 傷寒論과 比較하여 보면 太陽上篇은 第二卷, 太陽中篇은 三卷 太陽下篇은 四卷, 陽明篇은 五卷 少陰厥陰篇은 六卷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脫文이 있음도 알 수 있다고 주張함.

25. 謝觀曰「中医治外感病法咸根據此書 其加註解者 在明時有五十餘家 今則百餘矣 以成無己最為先 其篇次各不同 欲得 傷寒論原次 須讀千金翼方。아라하여 千金翼方이 傷寒原次임을 主張함。」

II. 総括

I. 辨脈 및 平脈篇

資料 10에서 王履는 叔和가 仲景舊論을 搜採하여 自己의 說을 混入시켜 雜脈을 卷首에 실어 玉石을 구별할 수 없게 했다 하였으며, 資料 11에서 黃仲理는 辨脈法 平脈法 等에 叔和가 自己의 意을 附하였는데, 비록 仲景의 說이 其間에 있다하더라도 三百九十七法의 外라 하였으며, 資料 13에서 方有執은 痰濕喝 辨脈上下篇 可不可諸篇은 모두 叔和가 分經하고 經外之餘言을 述하여 自己의 意를 附하여 撰次한 것이라 하였으며, 資料 17에서 喻昌은 叔和가 脈法을 補綴하여 二篇으로 나누고 上篇은 仲景原文을 그대로 두고, 下篇은 仲景을 託하여 自己의 意見을 넣었다고 하였으며, 資料 19에서 柯琴은 叔和의 「이미 仲景舊論을 搜採하여 症候診脈을 記錄한다」라는 말로 미루어 보건데, 脈法을 別立한 것은 단지 六經篇中에서 搜採한 것이라 하였으며, 資料 20에서 錢潢은 辨脈平脈을 第一卷으로 한 것은 其言이 原來 仲景原文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였으며, 資料 21에서 魏荔彤은 辨脈一篇이야말로 곧 仲景의原文이며, 平脈一篇을 나눈 것은 仲景의 本意가 아니며, 或叔和가 나눈 것이 아닌가 하였다.

2. 傷寒例

資料 11에서 黃仲理는 傷寒例는 叔和가 群書에서 採推하여 自己의 意를 附한 것이라 하였으며

資料 13에서 方有執은 成無己가 註解함에 어찌 義例가 方法中에 屬하는 것을 모르고 法外에 따로 傷寒例를 두었느냐고 하였으며

資料 15에서 閔芝慶은 傷寒例가 모두 仲景의 言이라고는 못하겠지만 그 가운데 있는 微詞實義는 素問熱論이 發하지 못한 것을 發한 것으로, 後人이 감히 할 수 없는 바이므로 叔和가 已意를 附했다면 可하나, 全體가 仲景의 言이 아니라 함은 不可하다 하였으며.

資料16에서 喻昌은 一卷의 平脈法과 二卷의 序例는 仲景의 文이 아닌데 오히려 首에 列하여 聖言을 錯乱시켰다 하였으며

資料20에서 錢潢은 傷寒序例一篇은 叔和가 經文을 妄用하여 謬說을 創立하였으니 차라리 내려 버림만 같지 못하다 하였으며,

資料21에서 委荔彤은 傷寒例는 叔和가 巨聖之書를 修輯하여 其凡例를 發한 것으로 그 뜻이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단지 傷寒을 復寒外로 推廣하려 한 것이다 하였으며,

傷寒論原文에 보면, 今에 仲景舊論을 搜採하여 其証候와 診脈聲色및 對病真方으로 有神驗者를 記錄한다 하였으니 傷寒例를 叔和가 作하였으라 짐작된다.

3. 痘濕喝篇

資料10에서 王履는 叔和가 仲景舊論을 搜採하여 自己의 說을 混入시켜 雜脉雜病을 어지럽게 卷首에 실어 玉石을 구별할 수 없게 했다 하였으며, 資料11에서 黃仲理는 痘濕喝三種一篇은 原來 金要略에 出하는 것인데 叔和가 其症이 傷寒과 相似하여 後人이 湿藥를 쓸까봐 六經之内에 篇入시켰다 하였으며, 資料13에서 方有執은 辨痘濕喝病篇은 相傳하길 叔和가 仲景金匱之文을 述했다 하니 비록 오래된 일이라 考証할 수는 없으나 其揭首之辭를 보건데 정말 그럴 것 같다 하였으며, 資料17에서 喻昌은 王叔和仲景書에서 大意를 살피지 아니하고 妄行編次補綴을 하여 의심이 가는 一綫이 있는데 그篇首之辭를 보건데 痘濕喝을 비록 太陽經病으로 함께하고서 宜慮別論이라 함이 그一微이라 하였으며, 傷寒論原文에 傷寒所致太陽 痘濕喝三種은 마땅히 別論해야 하는데 太陽과 相似한 故로 이에 실는다 하였다.

金匱要略中의 痘濕喝篇과 此較하여 보면, 그 내용이 相似하니 金匱要略中에서 出하였음이 타당하다 하겠다.

4. 六經篇 및 傷寒論全文

皇甫謐, 高湛, 孫奇, 故器之 陳際恒等은 다만 叔和가 仲景舊論을 摆次했다 했으며,

資料2에서 遲思邈은 丁金翼方에서 傷寒大論을 披하여 要抄를 集集한다 하였으며,

資料3에서 王肅는 外台秘要自序에서 傷寒論이

叔和의 詮次함을 얻어 仲景의 微旨로 하여금 더욱 彰明하게 되었으며 叔和는 다시 立方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仲景의 方을述하여 方으로 하였다 하였으며,

資料5에서 孫奇等傷寒論序에 歷代로 書府에 藏之한 傷寒論을 国命을 받아 校定한다 하였으며

資料7에서 劉完素는 叔和가 遺方을 摆次했으며 唐高繼冲이 編錄進上하였는데 모두 自己의 意를 混入시켰다 하였으며,

資料8에서 吳澄은 傷寒論은 仲寒自作이 아니며, 또 叔和가 다시 論次를 加했는데 傳錄者가 잘못 叔和之語를 其間參錯시켜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하였으며,

資料9에서 呂復은 審脈에 叔和之言이 섞여 있으며 三陰에 斷簡이 많다 하였으며,

資料11에서 黃仲理는 仲景之書는 六經에서 勞復까지 일 따름이라 하였으며,

資料18에서 汪琥는 咸無已 以後에 方有執, 喻嘉言, 程郊倩 等이 仲景六經篇原文을 倒亂했으나 六經篇原文을 叔和가 改易했다 하더라도 仲景妙義가 아직 其間에 있었다면, 이로 因하여 모두 잊어 버리지 않을까하여 成註本을 따를 것을 주장하였으며,

資料20에서 錢潢은 成無己가 叔和之遺書를 다시 註하여 仲景傷寒論뿐만 아니라 叔和의 舊本도 다시 볼 수 없다 했으며,

資料23에서 徐大椿은 傷寒論이 叔和가搜集하였다 하여 反駁하여 다시 篇하는데, 이는 果然 仲景原文과 合하겠느냐? 하였으며,

資料24에서 按先子는 外台秘要의 傷寒方註와 今傷寒論을 比較하여 其卷目을 考証해보면 太陽上篇은 第二卷, 太陽中篇은 第三卷, 太陽下篇은 第四卷 陽明篇은 第五卷, 少陰厥陰篇은 第六卷에 해당하여 크게 다르지 않다 하였으며,

資料24에서 謝觀은 傷寒論原次를 알려면 千金翼方을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学者들이 叔和와 成無己로 因하여 仲景原文이 改易되었음을 인정하나, 六經篇等을 다시 篇次하는데는 同意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外台秘要나 千金翼方도 今本과 크게 다른 篇目이 아님을 밝혔다.

5. 可與不可諸篇

資料11에서 黃仲理는 不可汗, 宜汗, 不可吐, 宜吐 等은 叔和가 다시 篇末에 集한 것이라 하였으며, 方有執도 같은 主張을 하였으며, 喻昌과 姚際恒도 不可發汗篇首之辭 즉 疾病이 至急하여 倉卒間에 尋按하여 要者를 얻기 어려우므로 諸可與不可方治를 다시 集한다는 말로 미루어 仲景의 言이 아니라 하였다.

IV. 結論

- 一. 辨脈 및 平脈篇은 叔和가 自作했다는 主張과 仲景之言에 叔和之說이 混入되었다는 主張이 있으며, 辨脈法은 仲景之言이며 平脈은 叔和之言이라 主張하는 学者도 있음.
- 一. 傷寒例는 대부분의 学者가 叔和의 叔和의 作이라하나, 全体가 仲景之言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反駁하는 学者도 있으나, 篇中之言으로 미루어 보건데 叔和의 作이라 思料된다.
- 一. 痘濕喝篇은 金匱要略中에서 叔和가 搜採한 것으로 思料된다.
- 一. 今傷寒論 六經篇은 外台秘要나 千金翼方으로 미루어 보건데 唐時의 傷寒論原文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思料된다.
- 一. 可與不可諸篇은 叔和가 六經篇中에서 採取하여 篇集한 것이라 思料된다.

〈参考文献〉

- 1) 皇甫謐 黃帝鍼灸甲之經 P. 3
- 2) 遙思邈 千金翼方 国立中国医薬研究所 中華五十四 P. 97
- 3) 王 蕤 外臺秘要上 成輔社 1975. 11. P. 3
- 4) 李 昉 太平御覽 明倫出版社 1975. 6册 P. 363
- 5) 張仲景 医道韓國社 P. 9
- 6) 蔡陸仙 中国医薬匯海 成輔社 1978. 6卷 P. 18
- 7) 上掲書 P. 19
- 8) 上掲書 P. 19
- 9) 上掲書 P. 19
- 10) 上掲書 P. 20
- 11) 上掲書 P. 24
- 12) 上掲書 P. 24
- 13) 上掲書 P. 25
- 14) 上掲書 P. 26
- 15) 上掲書 P. 27
- 16) 上掲書 P. 31
- 17) 上掲書 P. 33
- 18) 上掲書 P. 35
- 19) 上掲書 P. 37
- 20) 上掲書 P. 39
- 21) 上掲書 P. 40
- 22) 上掲書 P. 42
- 23) 上掲書 P. 43
- 24) 上掲書 P. 46
- 25) 謝觀 東洋医学大辞典 高文社 1976. P. 841